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7월 11일(화)

尹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 경제, 신재생에너지, 방산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유사입장국으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책임외교 공조 모색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11(화) 요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으로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틀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끝>